



임실군, 2024년 청소년어울림마당 개최

임실군이 지난 18일 청소년문화의집 광장에서 지역 청소년 및 학부모 5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청소년 문화에 대한 참여 활동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2024년 청소년어울림마당을 개최했다.

이번 행사 '우리는 함께 성장하는 청소년'이란 주제로 청소년의 달 5월을 축하하고 청소년 문화 활동에 대한 다양성을 제공하는 시간으로 진행했다.

1부에서 진행된 체험활동은 청소년참여기구가 참여하여 또래의 청소년들과 호흡하며 체험하는 시간을 가졌다. 아이싱쿠기만들기, 이동식카페운영, 타부스키 등 12종 체험 드림스타트업의 캐릭터 판박이와 비치백꾸미기, 청소년방과후이카데미의 꼬치 나눔숙의 대회, 청소년상담복지센터의 길거리심리상담과 모뎀인형만들기, 가족지원팀의 다문화희상체험 등 청소년의 이야기를 함께 이해하기 위한 소통의 자리로 마련됐다.

청소년들이 주도적으로 기획하고 참여하는 문화공연으로 진행된 2부에서는 즉석 노래자랑, 동아리 4팀의 밴드·댄스 공연 등 청소년들의 새로운 시작을 응원하고 함께하는 시간이었다. /임실=진홍영 기자



김제시 농·축협운영협의회, 성금 700만원 기탁

김제시(시장 정성주)는 농·축협운영협의회(회장 최승운)가 20일 지역 내 저소득 취약계층을 위해 사용해 달라며 700만원의 성금을 기탁했다고 밝혔다.

농식품부추진 시범사업은 저소득 취약계층의 안정 영양공급을 위해 지정된 국내산 농산물 10개 품목을 구입할 수 있는 카드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관내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보장시설수급자 제외) 6,688가구를 대상으로 카드 사용기간은 지난 3월 4일부터 8월 31일까지 6개월간 지원된다. 올해 농식품부추진 예산은 18억7천4백만원으로 시범사업 운영은 올해로 종료되며 2025년부터는 본사업으로 전환돼 연중 지급될 예정이다. /김제=곽노태 기자



남원 아영면, 취약계층 주거환경개선 봉사

남원시 아영면행정복지센터(면장 유중철)는 지난 18일 의용소방대원, 귀농귀촌협의회 봉사팀과 관내 취약계층 주거환경개선 봉사활동을 통해 이웃사랑을 실천했다.

해당 가정은 1인1가구 소용행정을 통해 발굴된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독거노인 가구로, 생활쓰레기 및 음식물쓰레기 수거가 어렵고 방치되어 악취가 심하고 위생상 열악한 주거환경에 놓여 있었으며, 봉사단원 20명은 가정 내 방치된 폐기물 및 쓰레기 수거와 청소뿐만 아니라 마당에 무성하게 자라있는 잡초를 제거하고 문 경첩 교체 및 싱크대 문 수리 등의 소액 긴급 수리에 나섰다. /남원=김기두 기자

김제지역회, 신평동 독거노인에 400만원·물품 전달

김제시 신평동 행정복지센터는 김제지역 대표 봉사단체인 의연회(회장 한동엽)가 지난 18일 신평동에 거주하는 독거노인가정 5세대를 방문해 세대당 80만원의 현금과 후원물품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지난 1994년 창립을 시작으로 현재까지 30년 넘게 봉사활동을 지속해 오고 있는 '의연회'는 시와 독거노인가정물품 및 자매결연을 맺은 가정에 대해 후원물품, 현금지원 등과 함께 수시로 방문해 건강체크 및 말벗지원, 집수리 등 정서적, 경제적지원을 지속적으로 이어가고 있어 지역사회 내에서 호평을 얻고 있다.

후원금 대상자는 모두 생활이 어렵고 거동이 불편한 독거노인으로 후원금을 전달 받은 한 어르신은 "의연회의 결연을 계기로 해마다 지원을 받으니 경제적 어려움뿐 아니라 회원들의 따스한 마음과 정을 느낄 수 있어 더 행복하다"면서 고마운 마음을 전했다. /김제=곽노태 기자

학생들의 마음 시(詩)로 물들이다

전북교육청, 학생 시 페스티벌 성료... 시기별 다양한 프로그램 선보여

지난 18일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교육감 서거석) 오후당 일원에서 열린 '2024년 전북학생 시(詩) 페스티벌'이 성황리에 마무리됐다.

20일 전북교육청에 따르면 이번 행사는 학생들이 시를 기반으로 하는 인문학 축제를 통해 시에 담긴 아름다움을 느끼고 인문학적 소양을 갖춘 인재로 성장하도록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전통과 현대가 공존하는 상상, 협력, 미래 를 주제로 진행된 이날 시 페스티벌은 대회마당·체험마당·공연마당 등으로 진행됐다.

올해 주제를 담아내는 대표 시로는 초·중·고교 교사 39명으로 구성된 독서인문교육강화 현장 지원의 투표를 통해 윤동주 시인의 '서시'가 최종 선정됐다.

특히 오프닝 무대는 한복갈바대로 꾸며졌다. 전주교대 예비교사와 초등학교 44명이 한지 옷을 입고 패션쇼를 펼쳐 눈길을 끌었다.

시 페스티벌 핵심인 대회마당은 시 낭송대회, 친구와 함께 표현하는 시화전 시를 입힌 한지패션쇼 등 3개 분야로 꾸며졌다.

수상작으로는 시 낭송대회 초등부 대상 변암초 장민화, 중등부 대상 장수중 최예준, 고등부 대상 전북기계공고 이성민 학생이 차지했다. 이어 친구와 함께 표현



하는 시화전은 초등부 대상 전주자연초 기하진·이서윤, 중등부 대상 보안중 허유진·김수진, 고등부 대상 만경고 차경아·임현진 학생에게 돌아갔으며, 시를 입힌 한지패션쇼 대상팀으로는 영선중(강두이 외 6명)이 선정됐다.

또 체험마당에서는 부스별로 대표 시 구절과 함께 우리가 사랑한 시인 캠페인 시 캘리그래피, 시를 품은 머그컵 만들기, 시화 액자, 시 노래 콘서트 등 시를 활용한 다양한 체험이 이뤄졌다.

마지막으로 공연마당에서는 성악·시극·오카리나 앙상블 시낭송 등 시를 기반으로 한 곡들을 선보였다.

초등학교 저학년 대리고 참여한 학부모는 "우리나라 어디에도 없는 시 인문학 축제를 전북교육청에서 추진해 줘 고맙고, 우리 아이가 친구와 함께 시를 쓰고 그림을 그리는 일은 인생에서 멋진 경험이 될 것"이라고 소감을 전했다.

서거석 교육감은 "인문학은 예측 불가능한 미래사회에서 학생들의 삶을 한층 성숙하고 품격있게 만드는 원동력이 될 것"이라며 "더 특별한 전북교육" 학생 중심 교육으로 나아가기 위해 인문학 교육을 더욱 내실있게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장은성 기자



최덕수 열사 추모회, 36주기 정읍시민문화제 개최

최덕수 열사 추모사업회는 지난 18일 연지 아트홀 야외광장에서 최덕수 열사 36주기 및 최덕수열사 정신계승 정읍 시민문화제를 개최했다.

최덕수 열사는 정읍 출신으로 배영고등학교를 졸업하고 1987년 단국대학교 천안캠퍼스 법학과에 입학했다.

최 열사는 1988년 5월 17일 교내 광주영령 추모사에서 광주항쟁 성명서를 낭독하고, 다음날인 5월 18일 오전 11시 교내 시계탑 앞에서 광주민주화운동 계승과 군부독재의 타도를 외치며 분신해 5월 28일 순화했다.

이번 행사에서는 광주민주화운동과 열사 관련 사진자료 전시와 문화공연을 통해 학생과 시민들이 함께 어우러지는 자리로 마련됐다. /정읍=김대환 기자



고창군의회, 의정활동 체험 어린이 의회 개최

고창군의회(의장 임정호)는 20일 관내 초등학생들이 지방의회를 직접 체험하는 어린이 의회를 운영했다.

이번 어린이 의회에는 선동초등학교 학생 8명이 참석하여 학교생활에 대한 건의사항, 토론, 질의·응답 등 모의의회를 진행하였으며 더불어 의원들의 역할과 책임에 대해 배우고, 의회 시설물을 견학하며 지방자치에 대한 궁금증을 해소하는 시간을 가졌다.

어린이의회는 학생들이 민주주의와 지방자치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미래의 정치리더로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자 마련한 프로그램이다. /고창=김영식 기자



남원 운봉읍, 1사 1촌 결연마을 봉사

남원시 운봉읍은 지난 17일, 자매결연 기관인 전북개발공사 최정호 사장과 직원 30여 명이 1사 1촌 자매결연 마을인 산덕마을(이장 김주택)에서 마을안길 환경정비 등 농촌 일손돕기 봉사활동을 펼쳤다고 밝혔다.

전북개발공사는 2021년 4월 1사1촌 자매결연후 매년 봄과 가을이면 일손돕기 등 봉사활동을 진행해 왔으며, 2022년과 2023년에는 에어컨 세탁기 등 1,500만원 상당의 물품을 경로당에 기증하기도 했다.

이은주 운봉읍장은 "비즈니스 외중에 운봉읍을 찾아 주민들과 소통하고 실질적인 도움에 감사하다"고 말했다. /남원=김기두 기자



농협 순창군지부, 육묘장 일손 돕기 '구슬땀'

농협중앙회 순창군지부(지부장 이병희)는 본격적인 영농철을 맞아 지난 17일 순창군 동계농협 벼 공동 육묘장에서 일손돕기를 실시했다.

농협 전북본부(본부장 김영일), 농협중앙회 순창군지부(지부장 이병희), 동계농협(조합장 양준섭)이 함께 실시한 일손돕기에는 20여명의 직원이 참여해 농촌 인력부족 해소와 육묘 수급을 필요로 하는 농가에 도움의 손길을 전하고자 벼 육묘 치상·복화작업에 구슬땀을 흘렸다.

이병희 지부장은 "농촌지역 고령화로 인한 인력부족, 인건비 상승 등으로 농가의 어려움이 더욱 커지고 있다"고 말했다. /순창=이양원 기자

제10기 진안군지역사회보장협의체 출범... 민관 복지공동체 기대

진안군은 지난 17일 진안군사회복지센터에서 제10기 진안군지역사회보장협의체 대표협의체 위원 위촉식 및 대표협의체와 실무협의체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서는 제10기 진안군지역사회보장협의체 민간위원장과 실무위원장 선출, 상반기 사업 및 하반기 사업추진 계획 보고 등이 진행됐다.

그 결과 민간위원장에 임경민 진안군사회복지협의회 부회장이 실무위원장에 이나진 진안군여성일자리지원센터 사무국장이 각각 선출됐다.

제10기 대표협의체 위원은 총 23명으로 위원들은 2024년 5월 17일부터 오는 2026년 5월 16일까지 2년간 지역사회보장을 증진하고 사회보장과 관련된 서비스를 제공하는 관계 기관·법인·단체·시설들의 연계와 협력 사업을 수행하게 된다.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지역의 사회보장 증진 과정에 민간이 참여해 협력 기반을 다지고 지역사회 복지 문제 등의 현안을 해결하는 민관 사회보장 거버넌스의 대표적인 기구이다.

제10기 진안군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제5기 지역사회보장계획의 연차별 시행계획 수립·시행·평가 등에 대한 심의·자문 역할을 하게 된다. /진안=우태만 기자



임경민 민간위원장은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진안군의 사회보장 증진을 위한 민관협력의 구심점이 되어 군민이 체감할 수 있는 복지 정책을 수립하고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함께 논의하고 협조하겠다"고 말했다.

전춘성 공공위원장은 "지난 4년간 김진 민간위원장님께서 지역사회보장협의체를 헌신적으로 잘 이끌어 주셔서 좋은 성과를 이룰 수 있었다며 '새로 구성된 제10기 대표협의체와 실무협의체 위원들이 민·관협력의 기반 위에서 지역사회 복지를 위해 적극 노력해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진안=우태만 기자

진안군 선수단 9명, 제53회 전국소년체육대회 출전

오는 5월 25일부터 28일까지 4일간 전라남도 일원에서 열리는 제53회 전국소년체육대회에 참가하는 진안군 출전 선수단이 확정됨에 따라 전춘성 군수와 정봉운 체육회장은 출전 선수들을 초청, 격려하는 자리를 가졌다고 20일 밝혔다.

진안군 출전 선수는 육상 레슬링 승마, 역도 총 4개 종목에 9명으로 4개 종목 모두 최근 전국대회 등 각종 규모 있는 대회에서 입상 실적을 내는 등 강호의 모습을 보여 왔기에 기대 이상의 성적을 거둘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현재 진안군 선발 선수는 △육상 종목 김지현(80m), 원도연(1,600m 계주) △레슬링 그레코로만형 주지훈(39kg), 노종민(92kg), 김경민(55kg), 안태연(51kg), 자유형 손주호(48kg) △승마 마장미술과 장애물(80/90 CLASS) 임이운 △역도 67kg급 김윤상 등이다.

전춘성 군수는 "진안군 학교체육 및 학생들의 체육발전에



이바지하는 선수단과 지도자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진안군을 대표하여 소년체전에 선발된 선수단이 자긍심과 애환심을 가지고 유망한 성과를 거두어 진안군을 널리 알리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진안=우태만 기자

남원 전교, 대한민국서당문화한마당 대통령상 수상

남원 전교는 지난 4월 27일 남원과, 5월 19일 서울(윤연공)에서 '서당 AI에 답하다'를 주제로 개최한 제22회 대한민국의서당문화한마당에서 영예의 대통령상을 수상했다.

한국전통서당문화진흥회와 서울특별시 종로구가 공동 주최하고, 문화체육관광부·교육부·전북특별자치도·남원시가 후원한 이번 행사는 강경대회, 제술대회, 휘호대회 등 3개 부문으로 나누어서 진행됐으며, 특히 옛 과거 제도의 향시 격인 예선전은 남원에서, 수도 한양에서 치러던 복시격은 본선 서울 윤연공에서 열렸다.

3개 부문 종합 대상인 수상왕에는 강경부문(단체제) 응시한 남원향교(김시열 외 18명, 남원)가 영예의 대통령상을 수상했다.

남원향교 김시열 전교는 "1600여년 이상 지속된 서당 문



화가 미래 사회 필요한 가치들을 찾아 비전을 제시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남원향교는 옛 정신과 전통문화를 계승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남원=김기두 기자